

“글로벌모터스 부품업체 광주·전남 유치경쟁 과열 우려”

빛그린산단 공장 예정 부지 면적 광주 45%·전남 55% 광주 기업들 입지보조금 받을 수 있는 전남으로 이전 가능성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하는 글로벌모터스 공장 예정지인 빛그린산단부지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자칫 지역간 과도한 부품업체 유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광주시의 글로벌모터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전남도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못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 김점기(민주·남구2) 의원은 “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될 예정인 빛그린산단부지에 입주하게 될 부품소재 업체 유치를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치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빛그린산단부지는 총 면적 407만1000㎡인데, 이중 광주시 소유는 184만7000㎡(전체면적의 45%)이고 전남도는 222만4000㎡(55%)를 가지고 있다. 이 단지 내에 설립될 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부지 41만㎡(67.9%), 전남도 부지 19만4000㎡(22.1%)를 각각 차지한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을 통해 생산하게 될 소형 SUV 자동차의 부품 등을 납품하기 위해 빛그린산단부지로 기업들이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지역으로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르면 투자유치 기업에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역선택보조금(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컨설팅보조금,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 관내 기업이 빛그린산단부지에 이전 또는 신설하면 입지보조금은 지원되지 않고 사실상 설비투자보조금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전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광주시 등 타지역 기업이 전남지역에 공장을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광주지역 부품기업이 전남도 부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흔히 국내 대다수 지자체가 타지역 기업의 지역 내 이전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광주지역 기업들이 ‘광주에서 광주로의 이전’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주에서 전남으로의 이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빛그린산단 내 전남부지의 입주 경쟁은 치열해지고, 상대적으로 광주부지는 텅 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광주시가 글로벌모터스의 초기 정착을 위해 내놓은 조세 감면 혜택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첫 적용 사업장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들어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빛그린산단 부지는 광주시 광산구와 함평군에 걸쳐있는데,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전남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50% 경감)와 시세 감면 조례 제7조(25% 추가경감) 등에 따라 글로벌모터스 지방세 75%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상 부동산 취득세 71억원, 재산세 5년간 49억8000만원 등 광주시 지방세에서만 총 12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남도는 글로벌모터스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광주시도 이와 관련해 전남도와 전혀 협의

를 하지 않고 있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설립된 글로벌모터스 하청업체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남도 부지로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지방세 역시 전남도에 납입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저게 붉어질 때 태풍 몇 개·뽕벌 몇 날?



김은영의
‘그림 생각’

(288) 흥시



오치훈 작 '감'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저 안에 천둥 몇 개/저 안에 벼락 몇 개//저게 저 혼자 등글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저 안에 뽕벌 두어 달/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장석주 작 '대추 한 알'>

어찌 대추뿐이라. 이 가을 햅쌀로 밥을 짓거나 막 나무에서 따든 과일을 먹을 때마다 저 시에서처럼 뽕벌과 무서리와 태풍 몇 개가 함께 떠오른다. 지난 주말 시골에 들러 감 따면서도 이모든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와 열매를 보며 감탄했다. 타파, 링링 등 가을 태풍 3개에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대봉감. 그 대봉이 잘 익어 흥시 되는 날, 흥시 한 알 다 먹고 나면 거센 시련을 견뎌낸 인간만이 그대로 내게로와 힘이 되어줄 것만 같다.

오치훈작가(1956~)의 '감' (2010년 작)은 우리나라 시골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저마다의 감에 대한 추억을 생각나게 한다. 눈부시게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 향해 뻗어나간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선홍빛 감은 늦가을의 서정을 참으로 운치 있게 색칠한다. 잎사귀 모두 떨어진 갈색 나뭇가지와 선홍색 감의 대비된 색조, 스산하면서도 잔잔한 화면이 금방이라도 눈앞에 펼쳐진 듯 사실적이다.

오치훈작가는 서울과 뉴욕에서 미술공부를 하고 활동을 해온 작가로 거리의 노숙자를 그린 '소외된 사람들' 연작을 비롯, 뉴욕, 강원도 사북, 산타페, 감과 뽕을 주제로 사람의 이야기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주변 환경을 서정적으로 작업해 왔다. 아무리 무겁고 어두운 무채색의 풍경일지라도 그의 손길에 닿으면 독특한 서정과 감수성으로 따뜻하게 다가온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실제 작가 특유의 마티에르라는 붓이 아닌 손끝으로 탄생한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광주시, 전남도·무안군·해남군에 “군공항 부지 개발 방향 함께 논의하자”

광주시가 6일 전남도, 무안군, 해남군을 향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 해남군 나아가 전남도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신 군공항 건설사업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5조7000억원대 사업비 마련에 쓰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 구상에 머리를 맞대자고 요청한 것이다.

곽현미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못지 않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종전부지 개발 계획도 중요하다”면서 “종전부지 개발이 성공해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도 늘어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본부장은 “248만 평에 이르는 현 광주 군공항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테마파크, 스마트시티가 생겨도 그 개발 이익이나 초·중·고 이익은 모두 이전될 군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이고, 광주시는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곽 본부장의 제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광주

시의 개발사업이 아닌 정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곽 본부장의 발언은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국방부 및 광주시와의 행정 협의조차 거부하는 무안군 입장이나 현재 격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해남군에 지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에 결사 반대하기 때문이다.

상인 등 군공항 이전 찬성 입장을 갖는 일부 무안 주민들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광주시 주도의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군 공항이 옮겨진다면 무안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기업 주도의 신규 산업 조성 등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지역에 제공할 토지보상비, 지원사업비 규모와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한데, 광주시는 자꾸 대화만 하자고 주장한다며 불편한 마음을 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전남도 “광주시 이전 추진 방식 유감” 무안군,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성명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자 전남도가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은 이전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했다.

전남도는 6일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관련 전방위적으로 특정지역 동향을 파악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및 마북동 탄약고 동시 이전을 논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해당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내 갈등만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후보지 중 한 곳인 무안군은 같은 날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 일방적 사업추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무안 군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나 무안군민 과반수 이상이 군공항 이전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1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17 12 point

1 3 0 7 5 8 4 9 2
116 10 point

2 4 6 3 7 1 2 8 0
115 8 point

4 6 2 8 1 0 9 7 3
113 6 point

2 7 0 2 1 3 0 0 2
112 5 point

0 0 1 2 9 0 0 0 0
11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1* 3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철제시공 모습

스틸방수시공 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